

“정부 공모사업 1년간 49건 탈락... 농친 국비 3300억”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전경선 도의원 전남도·시·군 경쟁력 지적 김정희 도의원 “돌봄 서비스 이용 2580가구 불과” 이용률 높이기 주문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미흡한 사업 계획과 부실한 콘텐츠 등으로 타 지역의 공모 경쟁에 밀려 유치에 실패한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이 최근 1년 간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을 유치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국비가 3000억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공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꼼꼼한 논리·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 간 탈락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못 탄 국비만 3300억원”=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더민주·목포 5)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유치에 나섰다가 탈락한 사업이 49건으로 해당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만 335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유치에 나섰던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사업비 400억·국비 240억)의 경우 ‘사업콘텐츠 미흡’으로 탈락했고 산업부의 ‘2022년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300억·국비 200억)은 ‘경쟁지역에 비해 낮은 지방비 매칭 비율로 참여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게 탈락 사유로 꼽혔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80억·국비 40억)에서는 사업계획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고 농림부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56억 원) 사업도 참여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과학기술부의 미래우주

교육센터 지정 (50억·국비 50억) 사업도 응모대학(순천대) 내 우수 관련 학과 없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탈락했고 메타버스 통합플랫폼 개발사업 (34억·국비 24억)도 기초 지자체의 미참여로 가점을 얻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유치에도 도전했지만 경쟁지(전주)에 견줘 전남의 후보지(신안)의 접근성 지표가 불리한 탓에 실패했고 산업부의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 (100억·국비 100억)사업의 경우 지역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사업 참여가 힘들게 됐다.

한편, 전남도가 같은 기간 유치에 성공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205건(국비 1조3183억원)이며 73건(국비 1조2823억원)에 대해서는 유치를 추진중이다.

◇“돌봄서비스 이용률 높여야”=김정희(더민주·순천 3) 의원은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전남의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정만 합해도 2만1900가구(3만3315명)인데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전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580가구에 불과하다”며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위탁해 추진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기본 이용료는 1만5500원이고, 소득에 따라 10~100% 수익자가 부담한다. 1년 이용 가능 시간은 일반가구 840시간, 중증 장애 부모 가구



“자원과 환경의 소중함 배워요” 9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나눔장터에 참가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장난감과 인형 등을 구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960시간이다. 김 의원은 “중위소득(4인 기준 월 소득 365만 7000원) 75%에 해당하는 한 부모, 장애아동 부모, 청소년 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을 감면해 줘도 일부 저소득 가정은 서비스 이용 부담스러워한다”며 도와 시·군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가구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돌봄 종사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청가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초기 귀농어귀촌인, 창업 컨설팅·자금 지원

전남도, 30일까지 참가자 모집...최종 60명 각각 최대 3000만원

출생아 및 영유아 급감 등에 따른 인구 감소,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생산성이 급감하고 있는 전남도가 귀농어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남의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어귀촌인들이 떠나고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입 5년 이내인 초기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초기 귀농어귀촌인이 도시생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자금을 보조해 사업 실패로 농촌을 떠나는 일을 줄

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선 사업대상자 80여명을 선발해 창업부트캠프에서 1박2일 세무회계, 비즈니스모델, 농수산업 설계 등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12월 중 최종 60명을 선발한다. 최종선발자는 해당분야별 경영전문가와 멘토·멘티로 결정되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제품개발, 기술지원 사업장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귀농·귀산·귀어인 중심 창업 사업과는 달리 귀촌인도 자격조건만 맞으면 용자 참여가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주광주중국총영사관 ‘화합의 장’

11~19일 ‘문화주간’...차이나센터서 노래 경연·토크콘서트 등

광주시는 “11일부터 19일까지 광주차이나센터에서 ‘제8회 중국문화주간’ 행사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중국문화주간은 광주시, 광주차이나센터,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 함께 한·중 양국 문화를 매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홍금을 타놓고(暢飲幽情)’를 주제로 11일 개막식, 한중미술교류전, 한중노래경연대회, 중국어 말하기 대회, 중국문화체험, 토크 콘서트, 사진 공모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등 한중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16일에는 지역 명사의 중국에 대한 추억의 토크 콘서트 등이 열리고, 17일과 18일에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수석 요리사가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중국 요리인 고추잡채, 해물누룽지탕 제조법을 직접 선보인다.

19일에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중노래경연대회 본선이 열리며, 11일과 15일에는 중국 요리 명인을 초청한 중국요리페스티벌, 11일부터 19일까지는 한중 미술 작가 40여 명이 참여하는 한·중 미술 교류전도 예정돼 있다.

중국문화주간은 광주차이나센터 현장 참여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367-6688)로 확인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강진만생태공원·해남 장춘숲길

가을에 꼭 걸어보아야 할 전남 명소 선정

전남도가 청명한 하늘과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강진만생태공원, 해남 장춘숲길을 ‘꼭 걸어보아야 할 명소’로 선정했다.

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은 일주문에서 시작해 천은사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과 천은저수지를 돌아보는 3.3km 순환형 산책로다. 소나무 숲의 상쾌한 기운과 사철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어 2년 연속 한국관광공사 안심여행지로 선정됐다. 상생의 길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7곳, 수달 등 야생동물을 배려한 0.4km 구간의 자연 친화형 탐방로가 잘 갖춰져 누구나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강진만생태공원은 20만 평에 달하는 갈대 군락지에 4.16km의 생태관찰 데크길이 조성돼 있어 갈대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청정한 갯벌에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쾨롱어, 수달 등 1131종의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해남 두륜산 장춘숲길 또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 두륜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흥사 일주문까지 약 4km에 이르는 산책로다. 아름다운 단대림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로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 두륜산 캐이볼카는 한반도 마지막 기를 단풍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윤현석 기자 chadol@



2022 자전거타기 그린자전거축제

11월 13일(일) 영산강 일원

장소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극락교)	참가비	전 종목 무료
종목	자전거대행진	접수	062-376-3112(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1.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비경쟁 퍼레이드 4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 → 나주대교 → 빛가람대교 → 영산교 → 영산대교(유채광장/반환) → 영산교 → 빛가람대교 → 나주대교 → 승촌보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2시 40분까지(3시간)
- 2.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비경쟁 퍼레이드 2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반환)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1시 10분까지(1시간 30분)
- 3. 신청:** 사전 전화접수
- 4. 참가자준비물:** 개인 안전장구, 자전거
- 5. 자전거대행진 당일안내** (마스크 착용)
 - 1) 참가자접결시간: 오전 9시까지(출발선 대기)
 - 2) 장비점검(배변 등 부착물 체크): 오전 8시~9시
 - 3) 출발시각: 오전 9시 40분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배번호를 부착한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주최측은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 등에 대해 응급조치 및 보험 보상규정 한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개인 지병, 혈압, 당뇨, 과로, 심장질환 등)를 고려하여 참가신청 및 개별 상해보험 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 ·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 | 주관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후원 | 광주광역시